

# 잃어버린 東高(동고)를 찾아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놀토(노는 토요일), 맨붕(맨탈붕괴의 줄임으로 이성을 잃거나 한계에 도달했을 때), 훈남(훈훈한 남자), 까도남(까칠한 도시의 남자), 생선(생일선물), 얼큰(얼굴이 큰사람) 등과 같이 자주 사용하는 말들을 줄여서 사용하고 있다.

얼마 전 6·25전쟁에 참전했던 팔순을 넘기신 참전용사 분들이 학생들에게 6·25전쟁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우리 학교를 방문하셨다. 대부분 이곳 동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인데 우리 학교에 애정과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중 유독 한 분이 동산고 졸업생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야구를 비롯해 동산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계셨는데 우리 학교를 부를 때 마다 꼭 ‘동고’라고 하셨다.

부산에 가면 동래고와 동아고가 있는데 동래고를 ‘동고’, 동아고를 ‘아고’라고 부른다. 동래고가 동아고보다 역사가 오래되어 ‘동고’로 부른다고 한다.

동아고가 역사가 오래된 동래고에게 ‘동고’를 빼앗긴 것이다.

인천에도 인천고를 ‘인고’, 계물포고를 ‘제고’, 인천기계공고를 ‘인기공’ 등으로 역사가 오래된 학교들은 이런 식으로 학교 이름을 줄여서 부른다. 본교 20회 졸업생인 부개여고 김중천 교장선생님이 동인천고에 근무하실 때 전화를 주셨다.

동인천고 학생들이 동인천고를 ‘동고’라고 부르는데 이건 아닌데 라고 말이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도 동산고등학교를 東高라고 불렀는데 30여년 전 동산고에 부임한 이후 동고라는 표현은 인천에서 살면서 50대 이상인 분들이 가끔 표현하는 것 이외에는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

대한민국에 동산고가 몇 개있을까?

우리 동산고(1938년 개교)를 비롯해 영주동산고(1973년 개교), 대전동산고(1978년 개교), 안산동산고(1995년 개교), 고양동산고(2013년 개교) 등 5개가 있다.

왜 우리 동산고 앞에 지역 이름을 붙여 사용하는지는 모르지만 동산고가 좋아서 사용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우리 동산고는 ‘인천동산고’도 ‘원조동산고’도 아닌 그냥 ‘동산고’이다. 역사는 없애기는 쉬워도 다시 만들기는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선배들이, 인천시민들이 만들어 놓은 ‘東高(동고)’를 찾고, 잃어버린 동산의 역사를 찾아 보존해야 한다.

동산을 졸업한 동문여러분, 동산에 재학 중인 재학생 여러분, 앞으로 우리 동산고를 부를 때는 ‘동고’라고 부릅시다! ㄸ



김건수 교장선생님